

유로2016 프랑스 · 독일 4강 대격돌

포르투갈 · 웨일즈전 레알마드리드 호날두 · 베일대결에 관심

프랑스와 독일의 박매치가 성사됐다. 프랑스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아이슬란드를 5-2로 대파했다. 아이슬란드발 돌풍을 잠재운 프랑스의 4강 상대는 독일이다. 또 다른 준결승전이 한 수 아래 팀들인 포르투갈-웨일즈의 맞대결로 결정되면서 프랑스-독일전 승리팀이 우승에 가까지 않았느냐는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두 팀이 4강으로 올라오는 과정은 관이 하게 달랐다. 개최국 프랑스는 비단길을 밟았다. 조별리그에서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를 차례로 잡재웠고 16강과 8강에서도 비교적 약체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만나 어렵지 않게 토너먼트를 통과했다. 반면 독일은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기는 등 순탄치 않은 발걸음을 했다. 하이라이트는 이탈리아와 만난 8강전이었다. 아무리 몰아쳐도 난공불락인 이탈리아의 수비벽에 모든 힘을 다 쏟았다. 초반 5명의 승부차기 키커 중 3명이 실

축하며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의 선방 덕에 프랑스의 파르너가 될 수 있었다. 두 팀의 가장 최근 메이저대회 맞대결은 2년 전인 브라질월드컵의 8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이 마츠 뮐헨스(바이에른 뮌헨)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뮐헨스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프랑스전에는 뛸 수 없다. 포르투갈과 웨일즈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스타들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의 우정 어린 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 등극에 힘을 보탤던 두 선수는 조국의 명예를 걸고 물러날 수 없는 승무를 벌인다. 유로2004부터 뛸 호날두는 대회 4강을 세 번이나 치르는 역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됐다. 아직 화끈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다.



유로 2016 8강에서 이탈리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속에 승리한 독일 선수단

베일은 처음으로 나선 유로 본선에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초반 프리킥 골로 팀의 상승세에 불씨를 당겼다. 두 팀은 지금까지 딱 세 차례 만났다. 2승1패로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앞선다. 메이저대회에서의 경쟁은 이번이 처음

이다. 포르투갈은 12년 전 이 대회 결승까지 오른 바 있다. 반면 웨일즈의 메이저대회 4강 진출은 모든 연령대 대표팀을 통틀어 최초의 일이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이론 교육 실시

2016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이론교육 4일 전주로키관 관호실에서 열린 가운데 150여명의 도내 14개 시, 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석해 유익하고 다양한 체육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인공지능시대의 트렌드 리딩, '생활체육지도자 강점 진단을 통한 자기관리', '효과적인 체육지도를 위한 티칭, 코칭 스킬' 등 37가지 다채로운 강의 주제로 진행됐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일육성처장은 "체육 현장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발산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지도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동호인들이 운동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모터스, AFC 투비즈와 내일 연습경기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6일 19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벨기에 2부리그의 AFC 투비즈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AFC 투비즈는 한국 기업이 인수한 최초의 유럽 프로축구 구단으로서 K리그의 레전드 김은중 코치와 황진성 선수를 영입하며 국내 팬들에게 알려졌다. 이번 연습경기는 투비즈가 전북에 요청하고, 구단 수뇌부와 최강희 감독이 받아들여져 성사됐다. 이번 연습경기가 갖는 의미는 서로 양 팀간의 경기력 측정과 친선 도모를 위한 경기이다. 그 외에 투비즈측은 벨기에 프로축구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 팬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다. 전북으로써는 지난 2003년 올림픽리온과의 친선경기 이후 3년만에 전주에서 유럽팀과의 경기를 함으로써 또 다른 전북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신설 경영기획실장에 김종을씨 임명

전라북도체육회가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신설부서인 경영기획 실장에 김종을(사진) 前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임명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체육회장은 지난 1일 김종을 신임 경영기획실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전북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을 경영기획실장은 앞으로 전북체육회의 예·결산 및 인사, 경영 평가, 홍보 등 전반적인 실무를 책임지게 된다. 김종을 실장은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체육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올림픽 출전 비인기 종목 선수들 메달 따 설움 씻는다

근대 5종 경기 키누 · 승마 · 조정 등 출격 기대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서지만 모두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사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체감하는 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이들의 질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뛰는 애국심과 이번 기회에 종목을 널리 알리려 한다는 사명감은 누구보다 크다. 일반팬들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근대5종은 펜싱과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의 성적을 합해 순위를 정하는 종목이다. 여러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강한 체력이 요구돼 민생 스포츠팬들의 전유물로 통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는 남자부 정진화(27·LH)와 전용태(21), 여자부 김선우(20·이상 한국체대)가 개인전에 출전한다. 김성진 근대5종 대표팀 감독은 "전용태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다. 대다수 아시아권 선수들이 유럽 선

수들에 비해 육상이 떨어지는데 전용태는 아주 대등한 실력을 보유 중이다. 기술 종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이미 기량이 검증된 민름 재실력만 발휘할 수 있다면 역대 최초 10위권 내 진입을 넘어 메달까지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키누는 8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조광희(23·울산시청)와 최민규(24·부산광역시청)가 스피리트 종목인 K-2(2인승) 200m에서 호흡을 맞춘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24년만의 금메달을 선사했던 조광희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상위권 입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승마에서는 김동선(27·갤러리아승마단)이 유일하게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막내아들인 그는 지난해 독일에서 진행된 독일 쥘 올림픽 국제선발전 그랑프리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해 당당히 올림픽판 반열에 올랐다. 김동선은 고등학교 신분으로 출전할

2008년 도하아시안게임부터 인천아시안 게임까지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실력파다. 이번엔 출전할 종목은 마장마술 개인전이다. 요트의 이태훈(30·보령시청)과 하지민(27·해운대구청)은 이미 두 차례나 올림픽에서 물살을 갈았던 베테랑이다. 이태훈은 RS:X 부문, 하지민은 레이저 부문에 출격한다. 31세 동갑내기인 김창주와 김지훈(이상 인천시체육회)은 470 부문에서 실력을 뽐낸다. 조정의 김동용(26·진주시청)과 김예지(22·화천군청)는 지난 4월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대회에서 남녀싱글스킬 출전권 확보에 성공했다. 14명의 선수들이 의미있는 도전에 임하는 육상에서는 김국영(25·광주시청)이 남자 100m 기록 경신을 위해 운동화 끈을 조여맨다. 10초16로 이 부문 한국기록을 갖고 있는 김국영은 일본 남자 허들 110m 기록 보유자인 츠쿠바 대학 사토루 다니가와(44) 교수의 지도 아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김민근기자



한국 경보의 대표주자인 박철성(34·삼성전자)은 이번이 4번째 올림픽이다. 한국 육상 사상 최초의 업적이다. 박철성의 출전 종목은 50km 경보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